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인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91 호 현대불교
2008년 8월 6일(음력 7월 6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25

생활 속에서 참다운 인간의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사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공했다는 것을 변연히 알면서도 만약에 우리가 '이놈이 뭘?' 하고 화두를 잡고 한다면, 내가 바로 화두인데도 불구하고 화두를 또 거기다가 붙여서 잡고 있다면 몇백 년이 가도 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시대에 따라서 공부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노인네들 공부하실 때는 뭘 조선이나 뭘 해서 과목이 몇 가지밖에 없었죠? 지금 보세요, 어떤가? 예전에는 무명웃을 모르고 명주웃을 입었는데, 지금은 무명웃 입은 분이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지는 대로 우리는 마음의 촛불을 켜고 앞장서서 밝게 증용을 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불법이지 어디 따로 불법이 있겠습니까?

법당에 가면 법당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부처의 형상과 나의 형상이 들어 아니요, 부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들어 아니요, 그 생명과 내 생명이 들어 아닌 고로 일체 만물만생이 다 들어 아닙니다. 왜 부처님께서 뱀 무더기를 보고 그렇게 삼배를 올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은 "사생자부(四生慈父)이신 당신께서 어째서 거기다가 예배를 합니까?" 하니 그것도 여러분 잘 알아들으셨겠지요? "이것이 바로 내 할머니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느니라. 역겹을 거쳐 오면서 그렇게 살아왔느니라. 그런데 나를 따라다니면서 너희는 아직도 그걸 터득을 못했다면 어찌하겠는고!" 하고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미생물에서부터 진화해서 모습을 바꿔 가면서 거쳐 왔다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아! 이것 참 어렵겠는데' 하고선 '이것이 좋겠다. 키가 크다 키가 작다, 다리가 길다 다리가 짧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다음에 나올 때는 생각한 대로 나올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한생각이 그렇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 한생각이 진화를 시키고 그 마음에서 진화력이 조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무엇이 됐는지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남을 항상 깔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뿐더러 자기를 자기가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나는 모르니까, 나는 중생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파리가 구더기를 모르고 구더기가 파리를 모르듯이 말입니다. 파리가 전자에 구더기였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뱃속에 구더기가 들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

가 전자에 구더기였다는 걸 알게 된다면 자기 뱃속에 구더기가 없을 겁니다. 사람들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생긴다고 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런 말을 한 번 더, 재차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가환과 병고와 가난에 찌들어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먹는 것도 가리고 잡자리도 가리고 온통 여러 가지로 가리면서 석 달 열흘을 기도하고 인등을 켜고 이렇게 합니다. 몸뚱이를 아무리 씻어 봤던들 마음보다 더 깨끗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하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같다고 해서 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땅속에서 금을 찾아서 바깥으로 캐내서 광을 내야 만이 빛이 나오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 무명속에 묻혀 있는 그 보배를 바로 지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것을 발견한다면 바깥으로 광명이 나가니 그게 관세음입니다. 자기가 행하는 일체가 스스로 보살행이 되게 되니까요. 자기가 하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님네들이 250제나 348계를 지키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도 상식적으로나 교양적으로나 모든 이치에 맞게 스스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다 이걸

부산을 가는지 제주도를 가는지 여길 왔는지 저길 갔는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끌고 가는 선장이 한마음의 안테나를 세우고 '아! 너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다. 너밖에는 나를 튼튼하게 할 수 없어. 네가 건강하고 네가 회전을 잘해 줘야 내가 건강하지 않겠느냐? 너를 끌고 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다면 참, 그냥 뭘 회전을 잘해 주지요. '아하! 지금 여기 가고 있구나!' 하고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법이죠.

이거는 과학으로도 해명 못하고 의학으로도 해명 못하고, 이런 어떤 것으로도 못하는 겁니다. 또한 가지, 내가 그 점을 지난번에도 얘기 했지만,

으로 인해서 몸뚱이를 다 받게 된 것이라 그것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애들은 "왜,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 나를 낳아 놓고 내게 해 준 게 뭐 있어?" 이렇게 한대요. 글썸. 그런데 그렇게 몸과 마음과 피와 살을, 그리고 의식까지도 차원까지도 받아서 나오니까.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 몸뚱이 속에서도 끼리끼리 인연 따라서 나한테, 즉 한 집으로 들어서 소임을 맡아 가지고 나를 운행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몸뚱이, 수많은 몸뚱이를 운행해 주는 것도 부모의 그 몸뚱이를 빌려서, '그 몸뚱이를 빌려서'가 아니라 그 몸뚱이가 그 몸뚱이입니다. 그러니까 2세의 아버지고 2세의 어머니죠. 그러니 그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단풍이 들어 낙엽이 졌다고 그래서, '아! 허무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자기를 낳아 놓고 자기가 웃을 났고선 그 밑으로 또 나오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그러니까 죽는 것도 없고 사는 것도 없습니다. 마음이라는 건 죽는 것도 없고 사는 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불 속에 들어가도 뜨거울 것도 없고 물 속에 들어가도 빠져 죽을 것도 없고 찬 것도 없고 뜨거운 것도 없어요. 이 마음이라는 건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그 도리를 아신다면 여러분은 가정이나 몸뚱이나 참 편안할 겁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유마힐 거사가 병을 앓고 있으니까 모두 병문안을 갔거든요. 병문안을 가서 "편찮으셔서 어떡하느냐, 어서 나오셔야지." 하니가 뭐라고 그러나 하면 "중생들이 다 나아야 내 병이 낫노라!" 이러더라입니다. 우리가 당장에 그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각자 자기 몸뚱이 하나를 보세요. 유마힐 거사가 말한 게 재짜 나오죠. 아니, 글썸 이 뱃속의 내 중생들, 그것들이 회전을 깨끗하게 다 잘해 주고 건강해야 내 몸이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중생들이 다 나아야 내가 낫죠.

그러니 참말로 불법이라는 이 자체가, 가면 갈수록 이 세상 이치가 어찌하면 그렇게 묘하고 광대하고, 알면 알수록 그렇게 뚜렷하고 바다로 물 흘러 내려가듯 너무나 신비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몸을 가지고 나와서 만약에 이 도리를 모르고 간다면 또다시 윤회에 그달리면서 사생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짐승이 됐다가 사람이 됐다가 별레가 됐다가 이렇게, 좌전했다가 승진했다

26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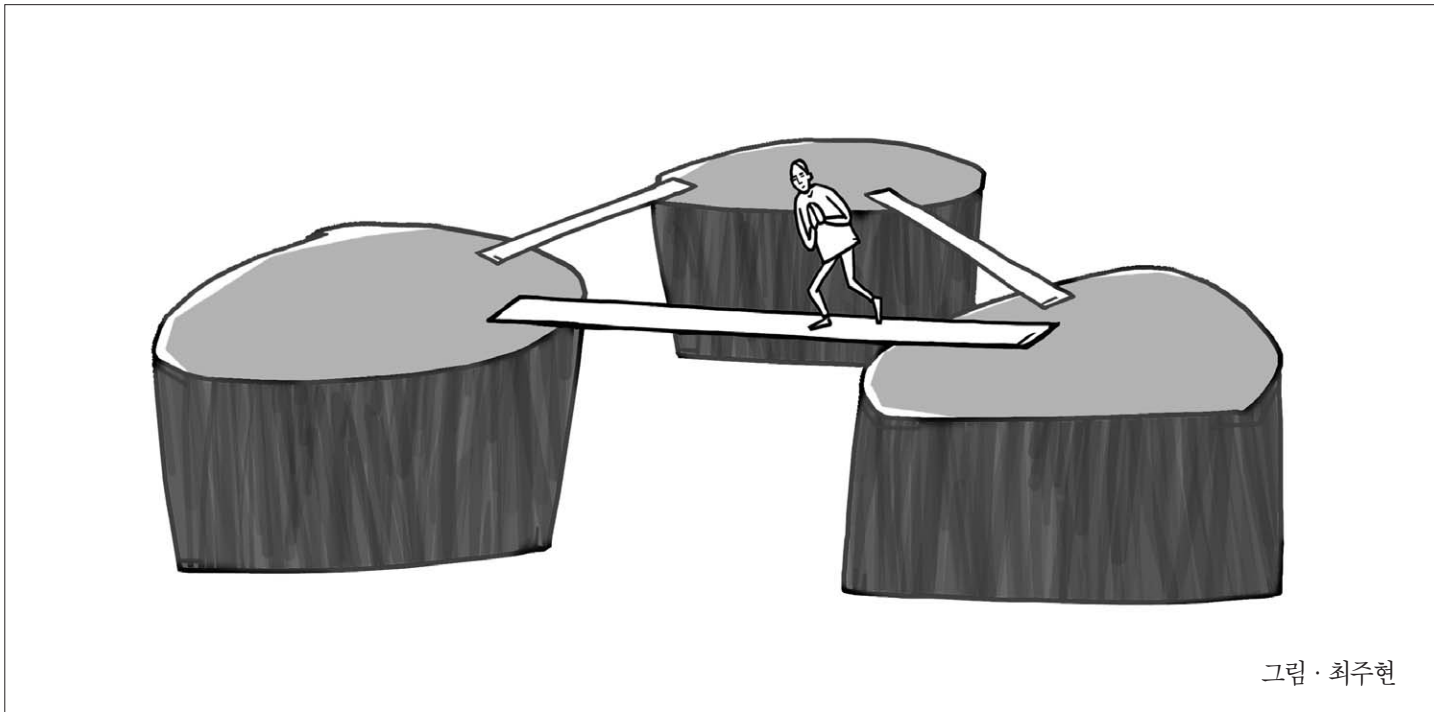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남편을 굶주리게 하고 가족도 굶주리게 하고 애들도 굶주리게 해서 나쁜 길로 가지나 않을까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마음 자체를 그렇게 일심으로써 주인공 안테나에 맡겨 놓고, 병고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 거기에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하는 믿음을 진실하게 가지고 물러서지 않았을 때 병고를 그냥 그대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도 그렇고 모든 게, 일체가 다 그러하니 여러분이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무명에 묻혀 있는, 땅속에 있는 보배와

나. 참으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뜻이 무엇인가? 부처님 이전에 단군께서 가르치신 천부경 그 81자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음미해 보신다면 불법이 얼마나 광대무변하고,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이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즐겁고 환희로우며, 내 마음 하나에 의해 일체가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지구 배에 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뱃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도 우리가 지금

정자 난자에 의해서 영원한 자기 자체가 태어난다 이겁니다. 거기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왜 자식들이 부모들과 성격도 닮고 모습도 닮고 그런 줄 아십니까? 정자 난자의 그 뜻을 받아서 몸을 빌려 가지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수십억 마리가 다 없어지면서 하나를 뽑아 놓는 겁니다. 뽑아 놔 가지고서는 물질은 다 없어지고 심령은 그 하나 뽑아 놓은 데 다 집합합니다. 인연 따라서 만난 몸이기 때문에 다 그 몸뚱이로 합쳐져서 세포 세포에 자기 소임을 맡아서 바로 한 집으로 됩니다. 그래서 정자 난자의 그 뜻을 받아서 몸뚱이를 키우는 것이니, 아버지 어머니의 그 혜택

한국불교 비구니계의 산 역사!

광우 스님의 출가 70년, 포교 50년 이야기

교보문고 추천도서



전국비구니회관 건립 당시 85억을 쾌척했던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과의 인연이야기
일제 강점기 출가했던 도반들의 이야기
비구니로서는 최초로 4년제 대학에 입학했던 이야기
한국불교 비구니로서는 최초로 조계종 명사법계를 품서한 이야기 등 살아 있는 한국불교 비구니계의 역사를 담았습니다.

복처님 밭대를 살아가라

광우 스님의 대담 1부 인터뷰 최정희전 현대불교 편집국장 | 조계종출판사 | 396쪽 | 14,800원

광우 스님은 이 책에서 "한 번도 평범하게 사는 삶이 부럽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이말로 수행자의 표본이다. - 「조선일보」

광우 스님의 출가 70년 이야기는 굵이 굵이 새긴 한국 비구니사 그 지대다 - 「한국일보」
종단에서 비구니의 위상이 일천하던 시절 출가해 '나 한몸부터 제대로 살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호르르지지 않는 수행 본분을 지킨 한국 비구니계의 선봉인 광우스님의 회고록 - 「서울신문」

일제 말기 여성들이 정신대로 끌려가지 않도록 환속하거나 심지어 은사 스님들의 강권으로 결혼해 불뿔이 흩어지지 않자 때버린 이야기 등 첫 장부터 가슴을 예전하게 한다. - 「세계일보」

광우 스님 수행 - 포교 이야기로 불교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도 쉽게 읽을 수 있다. - 「매일경제」
동국대 불교대학에 입학하고 남자 옷 차림으로 대학을 다닌 일 등 다양한 일화가 담겨 있다. - 「한국경제」